

의심자간 복음과는 다른 내용이며 전래적인 귀신론과 기독교를 혼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윤호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조상의 죄로 인한 피해가 유효할 수 없다"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대답이다. 가능하다고 말하며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체는 육신과 세상과 사탄과 조상들의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즉 구원받은 신자들은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성화 및 영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희 몸은 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헬라 철학에 기초한 이분설 혹은 삼분설에 기초하여 전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윤호는 "아무튼,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100퍼센트 알 수 없지만 현존하는 가족들에게 나타난 문제들과 조상들과는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고 추측적인 표현을 한다.<sup>8</sup> 우리 자신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늘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심지어는 죄

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한다. 이름을 붙이면 음란의 영, 미움의 영, 한의 영, 질투의 영, 게으름의 귀신, 교만의 영 등 수없는 이름을 우리와 타인들에게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윤호의 가계저주론은 자신의 독특한 경험과 이론에 기반을 두기보다 피터 와그너, 찰스 크래프트 등의 영적 전쟁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히키나 다른 비슷한 서적들과 비교해볼 때 거의 동일하다 싶은 정도로 영향을

### 불신자들 중에서 소위 잘되고

도덕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의 조상들은

### 저주를 받은 적이 없는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가 풀러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가계저주론에 대해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다. 선교현장에 부딪치는 영적 현상들과 나름대로의 체험을 나누고 싶은 그의 좋은 의도는

#### 주(註)

5. 필자는 히키의 책과 이윤호의 글에서 성경해석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오광만, 정훈택 그리고 김철홍의 글에서 잘 지적하였고 이번 특집에서 다른 분들이 다를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책으로 출간된 것으로는 소제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성경적인가?』 (말씀사역, 1999)를 참조하라.  
6. 스탠튼 존스, 리처드 버트만, 『현대 심리치료법』, 이관적 역(총신대학출판부, 1995), p. 504.  
7. 관련된 서적은 다음과 같다: 매릴린 히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최기운 역(베다니, 1997); 매릴린 히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은성, 1998); 이윤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베다니, 1999); 레베카 브라운, 테니얼 요더, 『뭣 모르게 당하는 고통-풀리지 않은 저주 때문이다』 (나침반, 1998).

8. 김철홍의 글; 132.  
9. Ibid., 133.  
10. Richard R. Bootzin, *Abnormal Psychology: Current Perspectives*, 3rd ed. (New York, NY: Random House, 1980), p. 16.  
11. 정신과 치료의 경우에도 완벽하게 치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의 경우에 초기에 진단되었던 경우 항정신제 약물 복용을 통하여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의 약 삼분의 일은 거의 완전히 치료되는 반면, 병이 재발되고 만성화되는 약 삼분의 일은 약물 평생토록 복용해야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나머지 삼분의 일의 환자들은 항정신제로도 별 치료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평생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12. 이윤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성서적, 임상적 타당성의 조명 및 실제적 적용, 『가정과 상담』 (1998년 10월호), 74. 이하 이윤호의 글은 이 글을 토대로 비판하였다.